

기획조사 06-072

---

# 韓-GCC(걸프협력 협의회) FTA 체결 영향과 시사점

---

**kotra**

## 요 약

- GCC(Gulf Cooperation Council : 걸프협력회의)는 1981년 안보 협력을 목적으로 결성된 페르시아만 연안 6개 산유국(사우디, UAE,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바레인) 간 결성된 지역협력체
  - GCC 경제규모는 세계 18위 수준, 세계 40%의 원유매장량을 보유한 세계 최대 석유시장 Major Player로 최근 고유가 현상에 따른 풍부한 오일머니 유입으로 7%대의 높은 성장세 지속중
  
- GCC는 1981년 통합경제협정 기본틀 범위내에서 1983년부터 역내무역자유화(Free Trade Zone)를 추진해 왔으며, 2001년 경제협약을 통해 EU와 같은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경제통합 로드맵을 확정하고, 2003년 역외관세율을 5%로 단일화하여 관세동맹(Customs Union)으로 발전했으며, 2007년 시장단일화(Common Market), 2010년 통화단일화(Single Currency, Monetary Union) 추진 예정
  - 대외적으로는 EU, 미국, 중국, 일본 등 여러 국가(지역공동체)와 FTA 협상을 진행 중임.
  
- GCC가 세계 에너지산업에서 차지하는 중요도를 감안, 주요 강대국들은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 등 경제,전략적 차원에서 GCC와의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회원국들이 미국과 개별 FTA를 추진하면서 GCC 국가간 FTA 체결에 대한 갈등이 노정된 바 있으나, 2005년 GCC는 미국을 제외한 국가(지역협력체)와의 대외협상은 GCC 단위로 공동 대응한다는 원칙을 재천명, 현재는 미국을 제외하고 GCC단위로 FTA를 추진중임
  - EU와는 2004년 상품협상을 타결하였고, 2006년말 최종 FTA 협상이 완료될 전망이며, 2005년부터 시작한 중국과의 FTA는 내년 상반기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중임.

그 외 일본, 인도, 파키스탄, MERCOSUR, 터키, 호주, 싱가포르, 뉴질랜드 등과도 FTA 협상을 진행중이거나 시작할 예정임.

- 미국과는 회원국별로 FTA협상을 진행중으로, 바레인(2004.9월), 오만(2005년10월)은 이미 FTA 체결을 완료하였고, UAE, 쿠웨이트는 협상을 진행중이며, 카타르는 중단상태, 사우디는 현재까지 FTA 논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임.
- GCC가 세계 주요국과 FTA를 추진함에 따라 교역확대 및 경제후생 증대 효과가 기대되며, GCC의 국제적 지위향상과 함께 각 회원국 내부 개혁추진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 세계 주요 열강들이 전략적 차원에서 GCC와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한국의 경우에도 GCC와의 조속한 FTA 추진이 필요한 상태임.
- 한-GCC 교역규모는 제4위 교역국(수출 8위, 수입 2위) 수준이며, 원유의 60%이상을 GCC로부터 수입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FTA 추진을 통해 교역확대,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 등 복합 효과를 기대
- 한-GCC FTA체결로 양국간 관세 철폐시 수출 2.6억불, 수입 7억불이 증가하고, 우리 GDP를 정태적으로 0.04% 증대시키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나, 보다 현실적인 분석은 주요 경쟁국들이 FTA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가 FTA를 체결하지 않을 경우 우리 수출은 5억불 정도 감소하고, 에너지 자원 확보에도 적색 경보가 울릴 것으로 우려되며, 중국석유화학시장에서 GCC에 시장 일부를 잠식당하는 부정적 효과가 예상됨.
- 따라서, 현재의 GCC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GCC와의 FTA 조기 추진 검토가 필요하며, 정치외교적 교류 확대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임.

# 목 차

<b>1. GCC 개요 및 경제현황</b>	
1.1. GCC 개요 및 조직 .....	1
1.2. GCC 국가의 경제현황 .....	4
<b>2. GCC 경제통합 추진현황</b>	
2.1. 경제통합 추진개요 .....	9
2.2. GCC 관세동맹 추진현황 .....	10
2.3. GCC 단일시장 및 통화단일화 추진동향 .....	14
<b>3. GCC의 FTA 추진동향</b>	
3.1. GCC의 FTA 추진배경 .....	18
3.2. 국별 FTA 추진동향 .....	19
3.3. GCC의 FTA 추진상의 주요특징 .....	20
3.4. GCC의 FTA 추진에 따른 효과 .....	23
<b>4. 한-GCC FTA 체결 시 예상효과</b>	
4.1. 한-GCC 교역과 FTA 체결 필요성 .....	25
4.2. 한-GCC FTA 체결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효과 .....	28
4.3. 분야별 예상효과 .....	30
<b>5. 시사점 및 대응방안</b>	
5.1. GCC의 FTA 추진에 따른 시사점 .....	38
5.2. 대응방안	

# 1. GCC 개요 및 경제현황

## 1.1. GCC 개요 및 조직

### 1.1.1. GCC 개요

- GCC의 공식명칭은 “The Cooperation Council for the Arab States of the Gulf”로서 통상 Gulf Cooperation Council(걸프협력회의, 약칭 “GCC”)라 통칭되고 있음<sup>1)</sup>.
- GCC는 1981. 5. 25. UAE의 아부다비에서 개최된 제1차 정상회담에서 GCC 헌장에 서명함으로써 공식 창설된 지역협력체로서 현재 회원국은 사우디아라비아(Kingdom of Saudi Arabia), 쿠웨이트(State of Kuwait), 아랍에미리트연합(United Arab Emirates), 카타르(State of Qatar), 오만(Sultanate of Oman), 바레인(Kingdom of Bahrain) 등 페르시아만(Gulf) 연안 6개국임.
- GCC의 설립 배경은 회원국간의 특별한 관계, 이슬람을 바탕으로 하는 공통적인 특징과 유사한 시스템으로 결속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모든 분야에서 조정, 협력, 통합을 통해 회원국간의 협력 및 관계 강화를 모색하기 위한 것(GCC헌장 전문 및 제1조)이나, 실질적으로는 1979년 이란의 이슬람혁명에 따른 왕정붕괴, 1980년 이란-이라크 전쟁 등 걸프지역의 전반적인 정치 외교적 위기상황에 공동 대응코자 걸프연안 6개 왕정 국가가 왕정체제 유지 및 안보협력을 목적으로 결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임

○ 회원국은 바레인을 제외하고 모두 이슬람 순니파<sup>2)</sup>라는 종교(종

1) GCC는 페르시아만협력회의, 걸프협력이사회, 걸프협력회의, 걸프협력기구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 사용되고 있으며, “Gulf”는 통상 국제적으로는 'Persian Gulf'로 통용되고 있으나, 사우디아라비아 등 아라비아반도 국가의 경우에는 Arabian Gulf(현재 홍해(Red sea)의 과거 명칭)라 칭하며, GCC의 명칭에서도 ‘the Gulf’라고 사용하고 있음.

2) 이슬람 인구중 약 80%가 순니파이며 GCC국가 중 바레인만 시아파가 약 70%정도 비율이고 나머지 5개국은

파)적인 동질성과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국왕이 통치하는 왕정 국가의 특징을 가지고 있음.

□ GCC의 기본 목표는 모든 분야에서 회원국간 조정, 통합 및 국민들 간의 결속을 다지고, 경제·금융·상업·관세·교육문화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동일 기준을 정립하며, 공업·광업·농업·수자원·축산분야의 과학기술발전, 과학연구센터 설립, 조인트벤처설립, 민간분야 협력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통일체를 형성하는 데 있음(GCC 헌장 제4조)

□ GCC는 창설 당시 회원국인 6개국은 현재까지 변동이 없으나, 예멘과 요르단이 가입을 희망하고 있음

○ 아라비아반도 남단에 위치한 예멘이 1996년부터 GCC 회원가입을 희망하고 1999년 12월에 공식적으로 가입을 신청하였으나, 오만과 카타르가 지지하는 입장인 반면, 사우디는 반대 입장임.<sup>3)</sup>

○ 2002년 1월부터 예멘은 비정치적인 부문에서 준 회원국으로서의 대우를 받고 있는데, Arab Education Bureau, Health Ministers' council, Labor and Social Affairs Ministers' council, and the Gulf Cup tournament에 참가하고 있으며, 2002년 10월에 예멘과 GCC는 양자관계를 정의하는 프로토콜에 서명함으로써 예멘의 GCC가입 첫 발을 딛음.

### 1.1.2. GCC 조직

□ GCC의 조직은 **최고이사회, 각료 이사회 및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조직은 필요한 산하조직을 둘 수 있게 되어 있음 (GCC헌장 제6조).

---

절대적으로 순니파의 비율이 높음. 이슬람 종파간 갈등은 이란-이라크 전쟁 원인의 하나가 되었고, 현재에도 사우디 중심의 순니파와 이란중심의 시아파간 갈등은 실질적으로 아랍-이스라엘간 갈등 이상으로 깊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며, GCC의 창설도 이란을 중심으로 하는 시아파의 확대를 경계하는 배경을 갖고 있음.

3) 예멘의 GCC회원가입의 가장 큰 장애는 정치적으로는 왕정체제가 아닌 공화국(The Republic of Yemen)이라는 점과 경제적으로 GCC국가와 수준차이가 크다는 점임.

- **최고 이사회(Supreme Council)**는 매년 개최되는 정상회담으로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며, 의장은 알파벳 순서에 따른 순환제임. GCC 최고 정책의 입안 및 지침 설정, 각료이사회 의 권고·연구 및 협의결과를 심의, 승인하며, 사무국이 작성한 보고서의 심의, 여타 국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문제를 협의, 사무총장 임명, 헌장 개정, 내부규정 승인 및 사무국 예산승인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음. (헌장 제7조 및 제8조)
  
- **각료 이사회(Ministerial Council)**는 회원국의 외무장관 및 분야별 각료로 구성되며, 의장은 가장 최근 최고이사회 의장국에서 맡아 매분기별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를 개최함. 모든 분야에 있어서 회원국간 협력 증진문제를 협의 검토하며, 회원국 사기업활동 조정, 회원국 상공회의소의 협력 발전, 회원국간의 인력 이동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활동하는 임무를 부여하고, 검토결과에 대해 최고이사회에 권고 상정 및 보고서 제출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음. (헌장 제11조 및 제12조)
  
- **사무국(Secretariat General)**은 사무총장(임기 3년, 1회 연임가능), 사무차장 (3명 : 정치, 경제, 군사) 및 사무처 직원으로 구성되며, GCC 본부<sup>4)</sup>가 소재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설치. GCC 공동사업 및 통합과 관련된 협력 및 협의를 준비하고, GCC 사업에 관한 연례보고서 작성, 최고이사회 및 각료이사회 의 합의사항을 이행, 각료 이사회준비와 의제 설정, 기타 최고 및 각료이사회에서 부여한 임무를 수행함.
  - 현재 사무총장은 Abdul Rahman ibn Hamad Al Attiyah (카타르인)로 2002.4.1.부터 재직 중
  
- **산하조직**으로는 ① 1998년에 설치되어 6개 회원국으로부터 30명 (각국별 5명)으로 구성된 자문기구인 Advisory Commission for the Supreme Council(최고이사회 자문위원회)과 ② 최고이사회

4) GCC의 본부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둔다고 GCC헌장(제2조)에 명시되어 있음

의 자문기구로서 분쟁 사안별로 구성, 최고이사회에 권고안을 제출하는 기능을 가진 Commission for Settlement of Disputes (분쟁조정자문회의), ③ GCC 국민 간 또는 GCC와 외국인 간의 무역 분쟁을 중재하는 GCC Commercial Arbitration Center(상사중재센터, 1993년), ④ GCC 각국의 특허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Patent Office (특허사무소, 1998년), ⑤ Gulf Standards Organization (GCC 표준기구, 1982년), ⑥ Gulf Investment Corporation (GCC 투자회사, 1984년), ⑦ The Gulf International Bank (GCC 국제은행) 등이 있음.

## 1.2. GCC 국가의 경제현황

### 1.2.1. GCC 국가의 경제개황

- 2005년 기준 GCC의 경제규모는 5,928억불로 세계 18위 수준으로 한국(7,876억불, 12위)의 75%, 네델란드(6,299억불, 17위) 다음 수준임
- GCC 국가 중 사우디아라비아가 GCC GDP의 52%를 차지하고 있고, 원유생산량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1인당 GNI는 카타르가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표1 > GCC 국가의 주요 지표 (2005년)

	GDP (억 \$)	1인당 GNI (\$)	인구 (백만명)	수출액 (억 \$)	수입액 (억 \$)	원유생산량 (천 b/d)
사우디	3,099	10,170	24.0	1,568	595	11,035
UAE	1,296	23,770	4.3	940	991	2,751
쿠웨이트	746	24,040	2.5	353	154	2,643
오만	307	9,070	2.5	174	97	780
카타르	343	36,700	0.8	261	105	1,097
바레인	135	14,370	0.7	159	71	37
<b>GCC 합계</b>	<b>5,928</b>	<b>13,425</b>	<b>34.8</b>	<b>4,150</b>	<b>2,441</b>	<b>18,343</b>
한국	7,876	14,040	48.1	2,844	2,612	0

주: 1인당 GNI, 인구는 '04년 기준  
 자료: IMF, World Bank, BP, 한국무역협회

□ 원유매장량은 세계전체의 40%, 천연가스는 23%를 차지, OPEC의 핵심 멤버로서 세계 석유시장 최대의 Major player

○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유생산(60%), 수출(57%) 및 매장량(22%)이 가장 많고, 천연가스는 카타르가 가장 많은 매장량을 가지고 있음.

< 표2 > GCC 국가의 에너지자원 (2005년)

구분	원유생산량 (천 b/d)	원유수출량 (천 b/d)	원유매장량 (억 배럴)	천연가스 생산 (10억 m <sup>3</sup> )	천연가스매장량 (10억 m <sup>3</sup> )
사우디	11,035	7,209	2,642	69.5	6,900
UAE	2,751	2,195	978	46.6	6,040
쿠웨이트	2,643	1,651	1,015	9.7	1,570
오만	780	914	56	17.5	1,000
카타르	1,097	677	152	43.5	25,780
바레인	37	-	1	9.9	90
<b>GCC 합계</b>	<b>18,343</b>	<b>12,646</b>	<b>4,844</b>	<b>196.7</b>	<b>41,380</b>
세계 전체	81,088	44,730	12,007	2,763	179,830
<b>GCC 비중</b>	<b>22.6%</b>	<b>28.3%</b>	<b>40.3%</b>	<b>7.1%</b>	<b>23.0%</b>

자료: OPEC, BP

□ 산업구조는 석유가스업의 비중이 37%(2004년 기준)로 매우 높고, 제조업 비중이 10.1%로 낮으며, 서비스산업(유통, 운수, 금융, 부동산, 공공서비스 등)이 43%를 차지하고 있음

< 표3 > GCC 국가별 산업구조 (2004년)

(단위 : %/GDP)

산업별	사우디	UAE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바레인	GCC
농업	5.0	3.1	0.5	2.1	0.3	0.7	3.6
석유가스	34.5	31.5	44.4	42.4	60.8	30.1	36.8
제조업	10.0	13.4	6.9	7.8	6.1	11.4	10.1
건설업	6.5	6.3	2.2	2.5	7.1	3.8	5.7
전력업	1.0	1.8	2.0	1.1	1.0	2.3	1.3
<b>총상품생산</b>	<b>57.0</b>	<b>56.1</b>	<b>55.9</b>	<b>55.8</b>	<b>75.3</b>	<b>48.3</b>	<b>57.5</b>
도소매업	7.5	10.7	6.9	12.7	5.1	8.6	8.3
운수업	5.0	7.9	4.9	6.9	3.0	7.5	5.6

금융업	4.0	6.1	5.9	0.9	4.1	6.5	4.6
부동산업	6.0	7.1	5.1	4.3	n.a.	8.3	5.7
총서비스생산	22.5	31.9	22.9	24.8	12.2	30.9	24.2
공공서비스	18.5	9.8	20.7	10.0	12.6	15.8	16.0
기타서비스	2.0	2.2	0.5	9.4	n.a.	5.1	2.2
총사회서비스	20.5	12.0	21.2	19.4	12.6	20.8	18.3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Gulf Research Center, Gulf Yearbook 2004, 2005.

□ GCC의 대외무역규모는 2005년 기준 5,282억불로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이며, 수출 약 3.3%, 수입 약 1.8%정도

○ 주요 수출국은 원유를 많이 수입하는 일본(19.8%), EU(13.1%), 우리나라(11.0%)이고, 주요 수입국은 EU(30.6%), 미국(11.1%), 중국(7.6%)임.

○ GCC 회원국은 유사한 산업구조로 역내 상품교역 비중이 6% 수준이나, 석유를 제외할 경우 30%수준임<sup>5)</sup>

< 표4 > GCC의 세계 무역 및 역내교역 비중

(단위 : %)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세계무역에서 의 GCC비중	수출	2.57	2.52	2.35	2.53	2.74	3.34
	수입	1.32	1.48	1.57	1.59	1.59	1.77
	교역	1.95	2.00	1.96	2.06	2.17	2.56
전체무역 중 역내교역비중	수출	4.84	5.23	5.88	5.06	5.01	4.78
	수입	9.46	8.94	8.80	8.02	8.65	9.03
	교역	6.41	6.60	7.05	6.21	6.34	6.25

자료: IMF 통계 활용 작성

5) A new fiscal framework for GCC countries ahead of monetary union, May 2006, Daniel Hanna, Standard Chartered Bank

## 1.2.2. GCC 국가의 최근 경제동향

- 고유가가 지속되었던 최근 3년간 GCC 국가의 경제성장률은 7-8%의 높은 신장세를 기록하였고, 이와 같은 추세는 당분간 유지 전망
- 실질 GDP성장률 : 8.0% (2003년) → 7.1%(2004년) → 7.3% (2005년)

< 표5 > GCC 국가별 최근 경제성장률

(단위 :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sup>주)</sup>
사우디	0.5	0.1	7.7	5.3	6.6	5.8
UAE	1.7	2.6	11.9	9.7	8.5	11.5
쿠웨이트	0.7	5.1	13.4	6.2	8.5	6.2
오만	7.5	2.6	2.0	5.0	6.7	7.1
카타르	4.5	7.3	5.9	11.2	6.5	6.7
바레인	4.6	5.2	7.2	5.4	6.9	7.1
평균(산술)	3.3	3.8	8.0	7.1	7.3	7.4

주: 2006년은 전망치임.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sep. 2006.

- 물가는 대체로 안정된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부동산가격과 주가상승 영향으로 UAE와 카타르 등지에서 인플레이션 조짐
- 경상수지와 재정수지는 고유가의 영향으로 대부분 국가에서 대폭 흑자로 반전되었으며, 오만과 바레인은 소폭의 흑자를 기록
- 실업문제 해결과 유가급변에 따른 경제적 불안정의 완화가 경제정책의 핵심 목표
  - 이를 위해 산업구조의 다변화, 민간부문의 육성, 내국인 고용쿼터 설정 등의 정책을 추진
  - 90년대 이후 민영화, 무역자유화, 금융자유화, 산업구조다변화 등 개혁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개혁의 속도는 매우 느림.

< 표6 > GCC 국가별 최근 주요 거시경제지표 (2005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경상수지 (%/GDP)	재정수지 (%/GDP)	외채 (10억 달러)
사우디	0.7	29.3	18.4	33.0
UAE	8.0	14.7	27.4	37.0
쿠웨이트	3.9	43.3	46.9	13.0
오만	3.2	14.2	14.5	4.0
카타르	8.8	20.6	11.8	18.0
바레인	2.6	11.7	1.4	8.0

자료: IMF

□ GCC 국가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는 고유가에 따른 경기활성화 및 투자여건 개선에 따라 최근 3년간 매년 30%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여, 2005년말 누계기준 734억 달러에 달함

○ 특히, UAE와 사우디의 FDI 유치가 크게 증가하고, 금액 면으로도 GCC FDI 유치를 주도하고 있음 (2개국이 총 FDI Stock의 74%를 차지)

< 표7 > GCC 국가의 외국인직접투자(FDI) 누계

(단위 : US\$백만)

	199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사우디	21,894	17,577	18,265	18,718	19,946	21,430	26,066
UAE	751	1,061	2,246	3,553	7,809	16,168	28,168
쿠웨이트	37	608	494	501	434	458	708
오만	1,706	2,506	2,595	2,621	3,110	3,310	4,025
카타르	63	1,912	2,207	2,831	3,456	4,655	6,124
바레인	552	5,906	5,628	5,845	6,362	7,227	8,276
계	25,003	29,570	31,435	34,069	41,117	53,248	73,367
순증	n.c.	n.c.	1,865	2,634	7,048	12,131	20,119

주: 2005년 UAE, 카타르의 FDI Stock 금액은 추정치임

자료: World Investment Report 2006, 2005, UNCTAD

## 2. GCC 경제통합 추진현황

### 2.1. 경제통합 추진개요

#### 2.1.1. 경제통합의 기본목표

- GCC는 역내 시장을 단일화하고(Common Market), 통화를 단일화(Monetary Union)하여 EU와 같은 경제공동체 형성을 궁극적 목표로 하고 있는데, 경제통합의 기본목표는 1981년 11월 체결된 경제통합협정(Unified Economic Agreement, 1982년 인준, 1983년 발효)에서 제시 되었는데, 동 협정이 경제통합의 기본 틀이 되고 있음
  
- 경제통합협정 체결 후 약 20년간은 GCC 차원의 통합노력이 부진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진전을 보인 것은 2000년 이후부터로 2001년 12월 오만의 무스카트에서 개최된 제22차 최고이사회의(정상회의)에서 **1981년의 통합경제협정을 대체하는 관세동맹, 단일시장, 통화단일화 등이 포함된 경제협약이 체결** 되었는데, 경제통합의 주요 로드맵은 다음과 같음
  - 관세동맹(Customs Union) 은 2003.1.1부터 시행하여 3년간 이행기를 거쳐 완성
  - 2002년말까지 각국 통화의 미국달러화에 대한 환율을 고정토록 하고, 2005년말까지 경제통합을 위한 경제성과목표 조건 합의
  - 단일시장(Common Market)은 2007년 말까지 완성
  - 통화단일화(Monetary Union)는 2010.1.1.시행을 목표

#### 2.1.2. 경제통합을 위한 주요 추진경과

- 1981 : GCC헌장 제정(3월) 및 서명(5월)로 지역협력체로 공식발족
- 1981 : 경제통합협정 체결
- 1982 : 걸프표준기구(Gulf Standards Organization) 설립(11월)

- 1983 : 경제통합협정발효(3월),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실현
  - 역내 관세장벽 철폐(무관세), 여행제한 해제
- 1984 : Gulf Investment Corporation 설립 (자본금 21억불)
- 1987 : 중앙은행 총재 간 각국 통화 간 교환비율 조정 합의
- 1989 : 통일 GCC 해외자본투자규정, 각료회의 승인
- 1992 : 2007년까지 단일시장형성 계획 발표
- 1993 : 합동은행감독위원회(Joint Banking Supervisory Committee) 설립
- 1993 : GCC 상사중재원 설립결정, 1995년 설립
- 1998 : 특허법 발효(10.3) 특허사무소(GCC Patent Office) 설립
- 1998 : 2000~2025 기간 중 중기개발전략 수립
- 1999 : 관세동맹을 2005년부터 시행기로 결정기로 합의 (추후 2003년으로 수정)
- 2001 : 1981년 경제통합협정을 대체하는 경제협약체결
  - 2010년 전까지 단일통화 도입, 2003. 1부터 관세동맹 합의
- 2002 : 제1회 GCC 경제포럼 개최
- 2003 : GCC 관세동맹 발효
  - 역외관세 5% 단일화(일부 예외품목 제외, 3년간 이행후 완성목표)
- 2005 : 대외무역정책의 표준에 합의
  - 역외국가와의 대외무역협상은 개별국 단위가 아닌 GCC 단위로 한다는 원칙
- 2006 : GCC 중앙은행 설립 및 통화단일화에 관한 협의 중

## 2.2. GCC 관세동맹 추진현황

### 2.2.1. 역내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실현

- GCC는 1981년 체결된 경제통합협정에 따라 1983년 3월부터 역내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에 합의하여 역내의 관세장벽 철폐<sup>6)</sup>, 여행 제한의 해제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회원국간 모든 농업, 축산업, 공업 및 천연자원 생산물의 역내 이동에 대한 관세가 면제되고 있음.

6) FTA의 관세부문 주요내용은 역내 무관세와 역외 관세를 4-20% 범위 내에서 결정하는 것임

## 2.2.2. 관세동맹(Customs Union)으로 발전

- GCC는 1983년 FTA 시행이후 약 10년간 협상한 끝에 1993년 역외관세 단일화에 관한 기본 원칙에 합의하였으나, 보상·관세수입금 분배 등에 관해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여 관세단일화의 진전은 매우 부진하다 1999년 9월에 2005년부터 관세동맹을 시행하기로 합의하였음.
- 관세단일화는 GCC-EU와의 FTA 체결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EU측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항임<sup>7)</sup>
- 2001년 12월 오만의 무스카트에서 개최된 제22차 정상회담(최고이사회)에서 EU와의 FTA협상 추진을 위하여 관세동맹을 2년 앞당겨 2003년 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3년간 이행기를 거쳐 완성기로 합의하고, 역외관세를 무관세품목<sup>8)</sup>과 5% 관세품목으로 단일화(일부품목 제외)함으로서<sup>9)</sup> 1983년 이후 역내 FTA는 관세동맹(Customs Union)으로 발전하였음.
- 2001년 경제협약에서 관세동맹의 기본원칙이 제1장 1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역외관세를 단일화(Common External customs tariff : CET)
  - 단일관세 규정 및 절차를 적용
  - 관세는 최초 입국지점에서 징수
  - 역내 모든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되, 금지 및 제한상품과 농산물 및 가축 검역에 관한 규정은 적용.
  - 역내 생산 상품에 대한 자국상품 취급

7) 1999년 GCC가 2005년부터 관세동맹 시행에 합의하자 EU이사회는 2001.7.16. GCC관세동맹을 조건으로 FTA협상 재개를 승인한 바 있음.

8) 산 동물, 채소, 과일, 의약품, 도서, 신문, 선박 및 상업용 항공기 등 417개 품목이 무관세 품목임

9) 역외단일관세율(5%)는 1999년에 합의하였음.

- 또한, 2001년 정상회담에서 GCC 통일관세법(GCC unified customs code)이 통과 되었는데, 2002년 1월 1일부터 발표된 GCC 통일관세법에 의하면, GCC 국가에서 수입하는 모든 제품의 통관절차는 최초 상품도착국가에서 처리하고 관세를 징수하게 되며, 징수한 관세는 국가간 분배를 위해 특별계정으로 관리함. 역내 상품의 경우에는 통계를 위해 국경통과 시 신고절차만 이행

### 2.2.3. 관세동맹(Customs Union)의 이행과 향후 전망

- 관세동맹의 이행관련 2002년 12월 정상회담에서 2003.1.1부터 관세동맹 시행을 승인하고, 재무경제협력위원회에서 권고한 관세동맹의 설립절차 및 단계<sup>10)</sup>를 승인함에 따라 2003.1.1.부터 관세동맹의 시행에 들어감
- 관세동맹의 발효 전 또는 발효시기에 각 회원국들은 관세동맹의 합의에 따라 역외 관세율을 조정 하였는데, 대부분의 역외 상품에 대해 무관세 또는 5%로 단일화하였으나, 국가별로 12-20%의 관세를 부과하는 품목이 있으며, 담배, 돼지고기, 알코올 제품은 수입금지 또는 100%를 초과하고 있음
- **바레인**은 2002년 1월부터 알코올(125%), 담배(100%), 417개 면세 품목(식품, 의약품)을 제외한 일반 상품의 수입관세를 5%로 인하하여 단일화하였음.
- **오만**은 자동차를 포함한 대부분 소비재 상품에 대해 최고 5%의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담배, 돼지고기, 알코올 제품은 10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10) 2002년 12월 제23차 정상회담(최고이사회)에서 승인한 “GCC 관세동맹 이행절차”에는 관세동맹 이행시기, 기본원칙, 수입상품의 최초도착 세관에서 관세징수원칙, 단일관세율(5%) 적용 및 무관세품목(417개), 관세징수방법 등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음.

- 쿠웨이트는 대부분의 수입관세를 4%에서 5%로 인상 조치하였고, 417개 식품 및 농산품에 대해서는 무관세, 담배는 150%, 주류는 수입금지 정책을 여전히 유지
- 카타르는 광범위한 제품에 대해 5%를 유지하고 있으며, 밀, 밀가루, 쌀, 사료용 곡물, 파우더 우유는 무관세, 알코올 및 담배는 100%, 12mm 철봉은 20%의 관세를 부과함. 카타르 산업개발은행(Qatar Industrial Development Bank : QIDB)에서 지원한 프로젝트에 활용할 기계, 원자재 등은 관세부과 유예혜택을 부여
- 사우디는 2001년 5월 최고경제위원회에서 당시 12 - 20%의 표준관세율을 대부분의 상품에 대해 5%로 인하 조치하였음. 그러나 의류를 제외한 카펫트 같은 섬유제품 등 483개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산업 보호를 위하여 12%를 적용하고 있고, 국내 유치(infant) 산업에 속하는 제품은 20%의 고율 관세를 적용하고 있음(참기름, 가구, 조리용 소금, 식용 고기부스러기, 토끼고기, 미네랄워터, 플라스틱파이프, 시멘트 등). 또한, 9개의 농산품은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계절관세로 25%를 부과하며, 대추야자, 장기간 보존 가능한 우유제품, 담배의 경우는 100%를 부과 중에 있음. 돼지(고기 및 가공식품), 알코올, 음란서적, 마약, 무기 등과 중고타이어 및 재생타이어, 우측 핸들차량, 사고 난 차량은 수입금지 품목임.
- 사우디는 WTO 가입(2005.12.11)과 관련하여 수입상품에 부과되는 모든 관세를 통합하여 10년간 이행기간 종료 후 평균 최고관세는 농산품 12.4%, 비농산품 10.5%로 인하하고, 비 농산품 중 11%에 해당하는 품목은 무관세, 가입당시 5-15%인 199개 제품의 관세율은 2008년도에 0%로 인하하여 무관세화 하기로 약속함
- 관세동맹은 3년간 이행기를 거쳐 2005년 말까지 완성하고, 2006년부터는 완전 시행을 목표로 하였으나, 실제 이행과정에서 관세면제, 표준, 수입금배분 등에 있어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여 완성 시기는 2007년으로 연기된 상황임

- 관세부과 표준, 수익금 배분 등 행정절차 이행 과정상의 문제 이외에 관세동맹의 완성을 위해서는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5% 단일관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12% 또는 20%를 부과하고 있는 품목들에 대해 역내 관세율 단일화 작업이 필요하나<sup>11)</sup>, 역내 국가별 자국 산업(제조업) 육성분야가 상이한 부분이 존재하여 합의점 도출이 순조롭지 않은 상태임
- GCC 관세동맹은 경제통합을 위한 필수적인 단계이나, 현재 위와 같은 기술적인 문제와 국가별 산업정책 우선순위의 상이점 등이 관세동맹의 완성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현재 연기된 일정(2007년말)내에서도 완전한 관세동맹의 완성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회원국 모두가 관세동맹의 완성과 함께 경제통합을 이루는 데 대한 기본적인 목표에는 이견이 없는 상태로 관세동맹의 경우에도 불완전하나마 목표기한 내 어떠한 합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2.3. GCC 단일시장 및 통화단일화 추진동향

### 2.3.1. 단일시장(Common Market) 추진동향

- GCC의 시장단일화는 1983년 역내 FTA 시행에서 출발하는데, 최초에는 거주, 이전, 민간부문 근로, 자본의 이동, 고용 등 5개 경제활동 분야에서 비차별적 대우(내국민 대우) 원칙에 합의함으로써 비록 협약에는 “단일시장”이란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단일시장의 시초가 됨
- 이후 GCC는 2001년 정상회담(최고이사회)에서 2007년 시장단일화(Common Market), 2010년 통화단일화(Monetary Union)를 목표

11) 예를 들면,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벽걸이 에어컨 관세율을 12%로 적용하고 있으나, 다른 회원국들은 5% 단일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사우디는 에어컨 산업보호를 위해 5%로 인하에 대해 부정적 입장임

로 설정한 경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시장단일화에 대한 로드맵이 확정되었으며, 단일시장의 영역도 모든 경제활동분야로 확대 되었는데, 2001년 경제협약 제2장 제3조에 명시된 주요 분야는 다음과 같음.

- 거주와 이전
  - 개인 민 정부부문에서의 근로
  - 연금 및 사회복지
  - 모든 전문직종에서의 고용
  - 모든 경제, 투자, 서비스활동분야에서의 고용
  - 부동산 소유
  - 자본의 이동
  - 주식 소유 및 회사의 설립
  - 교육, 보건 및 사회 서비스
- 단일 시장의 목표는 역내 모든 경제활동에서 회원국 국민에 대해서는 자국민 대우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부 비즈니스분야는 다른 역내 회원국에 개방하지 않았는데, 동 미 개방분야는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있음
- 1987년 3월1일부터 GCC 국민에 대해 소매유통부문을 개방하였고, 1990년 3월1일부터는 도매유통업에 대해 개방하였으며, 1988년 정상회담에서는 GCC국민에 대해 주식소유 및 거래, 주식회사의 설립부문에서 개방함으로써 역내 자국민대우를 시행함
  - 1993년 정상회담 의결에 따라 1995년에는 바레인에 GCC 상사중재센터가 설립되었고, 2002년 정상회담 의결에 따라 사우디 리야드에 GCC표준기구(GCC Standards Organization : GSO)가 설립됨
  - 2000년까지는 다른 회원국 국민에 대해 자국민 대우를 하는 비즈니스 분야를 positive list로 운영하였으나, 2000년 바레인 정상회담에서는 17개 분야에 대해서만 자국민 이외에 대한 허가를 제한하는 negative list제로 변경하였고, 2004년 5월에는 개인고

용사무소, 렌트카, 문화활동(인쇄출판, 신문잡지 제외)분야를 제외함으로써 현재는 다른 회원국 국민에 대해 개방하지 않는 분야는 10개 분야임.

- 각료이사회 산하 GCC 재정경제위원회는 GCC경제협력의 발전을 위한 일련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검토 논의 중에 있는 분야는 자본시장의 발전 및 통합방안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통합된 조세 시스템 분야임

- 시장 단일화 완성의 목표연도는 2007년말<sup>12)</sup>로 2003년부터 발효한 관세동맹에 따라 계획대로 진행 중에 있으나, 관세동맹의 이행 완료시기가 당초 2005년에서 2007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시장 단일화 일정도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 2.3.2. 단일통화(Monetary Union) 추진동향 및 전망

- 통화단일화의 목표는 관세동맹, 단일시장 등의 일정과 함께 경제통합을 위한 중요한 과정으로서 2001년 정상회담에서 2010년 1월부터 단일통화를 시행키로 로드맵이 확정됨.

- 또한, 동 정상회담에서는 2002년 말까지 각국 통화의 미국달러화에 대한 환율을 고정토록 하고, 2005년 말까지 경제통합을 위한 경제성과목표 조건에 합의

- 2005년 GCC 금융경제협력위원회(GCC재무장관 회의) 및 중앙은행 위원회는 통화단일화를 위한 경제성과지표의 전제조건으로 다음 5가지를 선정하여 합의

- 재정수지 적자가 GDP의 3%이내일 것
- 공공부문 부채가 GDP의 60% 이내일 것
- 외환보유고는 4개월치 수입액을 초과할 것

12) 시장단일화 로드맵은 2001년 무스카트 정상회담에서 합의(2007년말 완성)되었으나, 2002년 12월 도하 정상회담에서 시장단일화 완성시한을 2007년말로 최종 합의함

- 이자율은 최저 이자율 3개국 평균보다 2%를 초과하지 않을 것
  - 인플레이션은 6개국 평균보다 2%를 초과하지 않을 것
- 2004년 GCC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는 결제시스템의 통합을 위한 스마트가트의 표준이 합의되었고, 현재는 GCC국가 내에서는 현금 자동인출기(ATM)를 통해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
  - 단일통화(Monetary Union)를 위한 절차로 2005년까지 중앙은행 설립에 관한 합의를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 바레인, UAE가 중앙은행 본점 유치를 희망한 상태에서 합의되지 않은 상태임
  - 2006년 12월 개최예정인 정상회담(최고이사회)에서 중앙은행 설립에 관한 문제가 논의될 전망
  - GCC는 경제통합을 위해 50개 이상의 법률과 규정을 통일시키고 일반 공동정책 및 전략을 수립하는 등 통화단일화를 위한 제반 과제들이 단계별로 이행 중에 있으나 2010년 통화단일화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통화단일화의 전제조건인 5개 거시경제 목표 달성과 관련, 바레인의 2005년말 외환보유고가 수입액의 3.4개월분으로 목표치에 미달하고 있고, 2006년 말에는 2.85개월 치로 목표와의 격차가 더욱 커질 전망이며, 인플레이션 목표의 경우 카타르(8.8%)와 UAE(8.0%)의 인플레이션이 평균(4.5%)보다 2%이내 높은 조건(6.5%이내)를 훨씬 초과하고 있어 통화단일화 달성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전 GCC 고위층이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관세동맹과 단일시장 추진상황, 국가별 거시경제성과 등을 종합하면 2010년 통화단일화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며, 2012년 정도에 단일화의 목표가 명확해 질 것으로 보고 있음<sup>13)</sup>

13) Saudi Gazette, 2006.11.25.

### 3. GCC의 FTA 추진동향

#### 3.1. GCC의 FTA 추진 배경

- 1995년 출범한 WTO체제는 각국 통상정책을 지역주의(Regionalism) 체제 대신 다자주의(Multilateralism)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WTO 출범 10년이 지난 후인 현재는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이 점차 격화됨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경제통합,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 RTA), 특히 FTA 추진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sup>14)</sup>
- FTA는 기본적으로 체결 당사국간의 교역확대 및 투자활성화 등 경제적인 효과를 얻기 위하여 체결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거나 정치적인 요소와 안보적인 요인 또는 국내 제도의 개혁을 위한 수단, WTO 다자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많음<sup>15)</sup>
- 제2차 이라크 전쟁(2003년) 이후 고유가 상황이 고착화되면서 각국은 에너지자원 확보와 정치적인 영향력 확대 차원에서 중동국가들과의 협력이 필요하여 GCC와의 FTA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GCC 국가들은 제2차 이라크 전쟁을 계기로 경제통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면서 장기적인 경제성장 기반의 구축과 석유 의존적인 산업구조의 개선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음.
- GCC 각국은 FTA 체결에 따른 교역확대와 투자확대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되지만 GCC 국가 대부분이 제조업분야가 취약하고 석유 및 석유제품관련 산업에 크게 의존되어 있어 미성숙 단계에 있는 국내 산업에의 타격도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14) 지역무역협정(RTA)는 1990년대 초부터 급격히 증가하여 224년 10월말 현재 WTO에 통보된 협정 수는 약 300개에 달하고 있다. (이중 180여개는 WTO 출범이후 체결)

15) '중동 GCC와 EU간 FTA 추진 배경과 전망' 대외경제연구원, 2005

- 그럼에도 불구하고, GCC 국가들이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EU, 중국, 인도 등과의 FTA를 통한 연계 강화로 중동지역에서의 미국의 지배적 지위를 상쇄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또한, FTA 체결을 통해 국제질서에 적극 참여한다는 가시적인 효과로 절대 권력을 가진 왕정국가 체제 유지에 따른 인권문제나 민주화 문제 등의 대외적인 부정적 이미지를 상쇄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임

### 3.2. 국별 FTA 추진동향

- 고유가 현상이 구조화되고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가 현안으로 부각되면서 세계 각국은 자원 확보, 중동지역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 강화 등을 위해 GCC국가들과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 중에 있음.
- FTA 추진에 있어서 GCC 국가들보다는 상대 국가들이 보다 적극적임.

< 표 8 > GCC의 국(블록)별 FTA 추진현황

국(블록)별	추진동향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레바논은 GCC와의 FTA협상을 마무리하여 2006년 7월부터 FTA 협정이 발효됨.</li> <li>○ 시리아는 2006년 들어 최종문안에 대한 합의가 완료되어 서명절차만 남은 상태임.</li> <li>○ 요르단은 2006년 현재 GCC와 협상중임</li> </ul>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CC 전체 대신 개별 회원국과의 FTA 추진중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레인('04.9월) 및 오만 ('05.10월)과는 협상을 완료</li> <li>- UAE와는 2005년 3월 협상을 개시</li> <li>- 쿠웨이트는 2004년 2월 무역투자기본협정(TIFA : Trade and Investment Framework Agreement)에 따라 FTA 개시를 위한 조건을 협의 중</li> </ul> </li> </ul>

E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89년 GCC와 협력협정(Cooperation Agreement)을 체결한 후 1990년부터 FTA 협상을 개시하였으나, 약 10년간 진전이 없다가 1999년 GCC가 EU와의 협상을 위해 2005년부터 관세동맹 시행을 결의함에 따라 EU 이사회의 GCC관세동맹 설립조건부 협상추진 승인(2001.7.16)에 따라 2002년 3월부터 협상을 재개하여 2004년 상품분야 협상을 타결하였고, 2006년말 최종 타결이 예상됨</li> </ul>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유의 안정적 확보와 중동 내 미국 영향력 강화를 경계하는 차원에서 2004년 FTA 전단계로 경제협약에 관한 포괄협정을 체결하고 FTA협상을 적극 추진중</li> <li>- 2004. 7월 GCC와 FTA 조기추진에 합의한 후 2005.4월 협상개시, 2007년 상반기 타결을 목표</li> </ul>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6년 9월 GCC와의 협상을 개시, 2008년까지 최종안 마련 예정</li> </ul>
인도,파키스탄, MERCOSU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도, 파키스탄, MERCOSUR와는 경제협력에 대한 포괄협정을 체결하고, FTA 협상을 개시할 계획임</li> <li>○ 인도는 GCC와 무역·투자·산업개발·에너지 등 전방위 상호협력 추진</li> </ul>
터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5년도에 경제협력에 대한 포괄협정을 체결하고, FTA 협상을 진행 중이며, 2007년말까지 FTA 협약체결을 목표</li> </ul>
호주, 싱가포르, 뉴질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6년 말까지 FTA 협력협정에 서명, 2007년부터 본격적 협상을 진행할 예정</li> </ul>

자료원 : GCC 사무국 및 기타 언론발표뉴스 종합 정리

### 3.3. GCC의 FTA 추진 상의 주요특징

#### □ 대외협상 시 공동대응 기본 원칙

- GCC 회원국들은 2001년 GCC 정상회담(최고이사회)에서 대외 경제관련 협정에 있어서는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내용의 경제협약<sup>16)</sup>에 합의

16) 이 협약에는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관세동맹의 골격, 회원국 상품에 대한 자국상품 대우 등 GCC 회원국간 경제통합을 목표로 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GCC 회원국은 상호 제공하고 있는 특혜를 역외국가에 제공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어떠한 협정도 역외국가와 체결하지 않는다”는 대외무역협정에 대한 원칙이 규정되어 있음.

- 구체적으로 역외 국가와의 FTA 협상에 있어 회원국이 개별적으로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GCC 단위에서 협상**을 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며, GCC 단위의 공동협상을 통해 협상력 자체를 높이고 각 회원국의 대외경제정책을 GCC 단위에서 통일시키고자 한 것으로서 이것은 2003년부터 발효되고 있는 관세동맹, 그리고 역내 무관세 원칙과 직접적으로 연결

○ FTA 체결관련 회원국간 갈등 노정

- FTA 협상 시 GCC 공동대응이 기본원칙이나 바레인이 GCC 합의사항을 어기고 2004년 9월에<sup>17)</sup>, 오만이 2005년 10월에 미국과의 FTA를 개별적으로 체결하였고, UAE와 쿠웨이트가 미국과 개별협상을 추진하고 UAE-호주, 쿠웨이트-싱가포르 등이 개별단위로 FTA 협상을 하는 단계로 발전함.
- 미국은 9.11테러 이후 경제적인 목적보다는 중동지역의 정치경제 개방을 유도하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으로 중동국가 개별적으로 FTA를 추진 중<sup>18)</sup>인데, 이러한 미국의 목적과 GCC 국가중 가장 규모가 작고, 미국에 우호적이며, 산업다각화가 필요한 바레인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바레인과 가장 먼저 FTA를 체결한 것으로 분석<sup>19)</sup>

○ 2005년 GCC는 통합무역정책(Unified GCC Trade Policy)<sup>20)</sup>에 대해 합의한 이후 2006년부터는 미국을 제외하고는 GCC단위의 공동 대응 원칙을 준수

17) 바레인이 미국과 FTA를 체결하자, 사우디아라비아는 2001년 GCC 경제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강력히 비난한 바 있다.

18) 미국은 GCC단위보다는 개별국가단위로 FTA협상을 하는 것이 협상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 (“FTA 정책을 둘러싼 GCC내부의 갈등과 최근동향”, KIEP 세계경제 2006년 2월)

19) “FTA 정책을 둘러싼 GCC내부의 갈등과 최근동향”, KIEP 세계경제 2006년 2월

20) GCC와 다른국가/블록간 대외협력(Commercial exchange)은 GCC 최고이사회 의결, GCC경제협약, WTO규정에 의거 수행된다는 원칙으로 개별국가단위가 아닌 GCC단위의 대응원칙임

- 회원국들의 미국과의 개별 FTA 추진과 관련 갈등이 지속되자 2005년 12월 GCC 금융장관회의 및 최고이사회에서 2005년 6월 미국과의 FTA까지만 개별 협상을 인정하고, 이후의 FTA부터는 공동 협상을 한다는 원칙에 합의하였으며, 같은 해 12월 정상회담(최고 이사회)에서 통합무역정책(Unified GCC Trade Policy)으로 채택, 최종 결정됨
- 통합무역정책의 이행을 위해 GCC는 각국 상공, 재무장관으로 구성된 통합무역정책위원회를 설립하여 GCC 통합 대외경제정책 수립, 수출입 정책의 통합, 덤핑에 대한 국내상품 보호정책 수립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호주(UAE), 싱가포르(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UAE), 뉴질랜드** 등이 개별국가 단위로 협상을 하지 않고 GCC와 2006년 말까지 FTA 협력협정에 서명, 2007년부터 본격적 협상을 진행할 예정

□ FTA협상 전 포괄적 협정 우선 체결

- GCC는 중국, EU 등과의 FTA에서처럼 양자관계에 관한 포괄적 협정(Cooperation Agreement, Framework Agreement 등)을 먼저 체결하고 상품, 서비스 분야 FTA는 포괄협정의 틀에 따라 보다 간략한 절차에 따라 FTA 협상을 진행
- 포괄협정에는 에너지협력 등 경제협력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
- EU, 중국, 인도와의 Cooperation Agreement에 에너지 협력에 관한 내용이 모두 포함

### 3.4. GCC의 FTA 추진에 따른 효과

#### □ 무역창출 및 경제후생 효과<sup>21)</sup>

- FTA 체결에 따라 관세 및 비관세장벽이 철폐되면 무역창출효과(Trade creation effect) 및 무역전환효과(Trade diversion effect)에 따라 양국간의 교역이 확대되고, 무역의 증가는 곧 경쟁력이 낮은 산업에서 경쟁력이 높은 산업으로의 자원이 이동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증대됨으로서 경제성장의 효과를 가져 오고, 국내 투자 및 FDI가 증대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GCC 국가의 경우에는 무역대상이 가격탄력성이 낮은 에너지 자원에 집중되어 있어 FTA 체결에 따른 경제후생효과의 분석은 매우 어려운 과제임
- GCC와 EU와의 FTA 체결에 따른 효과분석과 관련, EU 집행위원회 컨설팅 회사인 PWC(Price Waterhouse Coopers)의 보고서에 의하면, GCC가 역외관세를 현재와 같이 5%로 단일화하여 EU와 FTA를 체결할 경우 GCC의 순무역 창출효과는 29.3억불, 경제적 후생은 장기적으로 GDP의 2.7% 증가하며, EU의 순무역 창출효과는 10.4억불, 경제적 후생은 GDP의 0.2%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함

< 표 9 > GCC-EU FTA가 무역 및 후생에 미치는 효과

(단위 : US\$백만, %)

구 분	GCC의 무역 및 후생에 미치는 효과	EU의 무역 및 후생에 미치는 효과
1. 실질환율변화(\$대비)	(-6.5)	(0.3)
= 실질수출변화	4,153	10,636
2. 무역창출효과 = 실질수입변화	2,929	12,397
3. 무역전환효과	622	13,437
4. 순무역창출효과(4=2-3)	2,307	1,040
5. 소비자잉여 변화	1,507	4,445

21) '중동 GCC와 EU간 FTA 추진 배경과 전망'(대외경제연구원, 2005) 자료 일부 인용

6. 생산자잉여 변화	7,659	11,616
7. 관세수입 포기분	949	17,684
8. 경제적 후생의 변화(8=5+6-7) (GDP대비 증가율)	8,217 (2.7)	-1,624 (-0.2)

주 : 역외관세율 5% 단일화, 완전 무역자유화 경우를 상정하여 분석  
 자료 : PWC

- 그러나, Dean A. DeRosa & David Kernohan은 GCC의 경제적 후생이 GDP의 2.3% 증가하고, PWC와는 달리 EU의 경제적 후생도 0.2% 증가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경험적 증거에 바탕을 두고 FTA 체결에 따른 기대효과를 분석한 Scott L. Baier & Jeffrey H. Bergstrand의 연구결과는 FTA체결로 GCC는 270억 달러, EU는 280억 달러 상당의 순무역 창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
- FTA 체결에 따라 관세인하효과 이외에 무역장벽의 제거에 따른 비용의 감소효과,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비용의 증감효과가 있어 정확한 효과분석이 어렵고, 더욱이 여러나라와 FTA를 체결할 경우 더욱 복잡해 지기에 FTA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분석은 매우 어렵다 할 것이나 FTA 체결에 따른 교역확대 및 간접적 효과 등을 감안하면 FTA 체결은 결론적으로 GCC국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GCC의 국제적 지위향상 및 기타효과

- EU, 중국, 일본 등 세계 주요국과의 FTA 체결로 GCC의 국제 경제질서에서의 지위향상과 함께 미국의 중동국가에 대한 지배력을 현재보다 약화시킬 전망
- GCC가 현재 추진중인 경제통합이 완성되고 세계 주요 열강과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중동내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의 정치·경제질서에서의 영향력이 확대되며, 장기적으로 중동평화의 정착에도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또한, 이슬람 원리주의 및 테러국가, 왕정체제에 의한 비민주적 정치행태 및 인권문제 등 부정적인 국가이미지를 일부 해소할 것으로 전망
- FTA 추진을 통하여 GCC 각국이 내부 정치경제 개혁추진의 명분을 제공하고 실업문제를 해결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

## 4. 한-GCC FTA 체결 시 예상효과

### 4.1. 한 · GCC 교역과 FTA 체결 필요성

#### 4.1.1. 한 · GCC 교역현황

- 2005년 기준 한 · GCC간 교역규모는 479억불(4위 교역국) 수준이며, 수출은 62억불(8위 수출국), 수입은 417억불(2위 수입국)로서 무역적자는 355억불에 달함.

< 표 10 > 한-GCC 국가별 교역규모

(단위 : US\$백만)

국가명	'04년			'05년			
	수출액	수입액	무역수지	수출액	수입액	교역규모	무역수지
사우디	1,708	11,800	-10,091	2,093	16,106	18,199	-14,013
UAE	2,587	7,290	-4,703	2,733	10,018	12,751	-7,285
쿠웨이트	419	3,832	-3,413	458	5,977	6,435	-5,519
카타르	226	3,650	-3,424	521	5,599	6,120	-5,078
오만	157	2,475	-2,318	304	3,705	4,009	-3,401
바레인	82	288	-206	118	308	426	-190
계	5,179	29,335	-24,155	6,232	41,713	47,945	-35,481

자료 : 한국무역협회

-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 등 수송기계(16.6억불), 산업용 전자제품(8.7억불), 철강제품(6.9억불), 직물(5.4억불), 산업기계(4.5억불), 기초산업기계(3.9억불), 가정용전자제품(3.1억불) 등 順

< 표 11 > 2005년 한국의 대 GCC 주요 수출 품목

(단위 : US\$백만)

MTI 코드	품목명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합계
74	수송기계	694	452	90	196	131	22	1,659
81	산업용전자제품	57	703	16	9	4	1	871
61	철강제품	215	185	67	107	16	34	685
43	직물	168	312	15	1	0	3	542
72	산업기계	94	96	87	58	36	9	452
71	기초산업기계	113	71	13	54	47	19	388
82	가정용전자제품	147	24	22	21	8	10	314
32	고무제품	99	84	20	5	5	2	247
44	섬유제품	124	59	14	2	1	1	245
21	석유화학제품	89	59	10	3	9	3	194

자료 : 한국무역협회

- 주요 수입품목은 원유 및 석유제품(406억불), 석유화학제품(7억불), 비철금속제품(2.9억불), 농산물(0.2억불) 등 順

- 우리나라의 원유 및 석유제품 전체수입액 667억불 중 GCC국가로부터의 수입액은 405억불로 61%를 차지

< 표 12 > 2005년 한국의 대 GCC 주요 수입품목

(단위 : US\$백만)

MTI 코드	품목명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합계
13	원유 및 석유제품	15,325	9,818	5,967	5,533	3,697	220	40,573
21	석유화학제품	656	1	0	21	0	0	699
62	비철금속제품	20	120	8	0	0	77	287
81	산업용전자제품	1	34	0	0	0	1	117
61	철강제품	35	4	2	0	0	0	102

23	비료	16	0	5	27	0	0	71
22	정밀화학제품	20	0	0	1	0	0	43
33	가죽및모피제품	1	1	0	0	0	0	35
1	농산물	20	0	0	0	0	0	21
4	수산물	5	2	0	0	3	6	20

자료 : 한국무역협회

#### 4.1.2. 한·GCC FTA 체결 필요성

##### 제4위 교역대상국으로 중요성 다대

- GCC는 교역규모 479억불로 4위권이며,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고, 대 GCC수출도 큰 폭의 신장세를 지속 중('05년 20% 증가)인 중요한 시장으로서 FTA 체결을 통해 수출확대를 지속 유지할 필요가 있음

##### 원유의 60%이상을 GCC로부터 수입,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

- 우리나라 원유도입의 80%를 중동에 의존하고, GCC로부터 61%를 도입하고 있어 에너지 안보상으로도 매우 중요한 지역
- FTA 체결을 통해 안정적인 원유자원의 확보와 함께 에너지개발사업 진출기반 마련 필요

##### 경쟁국의 FTA 체결 추진에 따른 경쟁력 약화우려

- 중국, 일본, EU 등 경쟁국들이 적극적인 FTA 추진 중에 있어 경쟁국이 FTA 체결을 선점할 경우 우리제품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어 GCC 시장에서의 한국산 위치를 크게 잠식당할 우려가 있음

##### 경기활성화에 따른 수요증가 및 건설플랜트 프로젝트 수주여건 개선 확대필요

- 제2의 중동 붐에 따라 우리의 대중동 프로젝트 수주도 크게 증가하고 있고, 고유가에 따른 GCC 각국의 풍부한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각종 프로젝트 발주가 계속 확대 추세에 있어 FTA 체결을 통한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중동시장 진출 기반을 확보 필요

## 4.2. 한-GCC FTA 체결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효과

### 4.2.1. 교역관계에 미치는 효과

- GCC가 EU, 중국 등 다른 블록(국가)와 FTA를 체결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한-GCC FTA 체결로 양국의 관세가 철폐될 경우 우리의 대GCC 수출은 약 2.6억 달러(4.9%), 수입은 약 7.0억 달러(2.4%) 증가할 것으로 추정 (KIEP 분석, 2004년 통계기준)
- 수출증가효과가 큰 품목은 전기전자기기, 철강 및 비철금속 등이며, 수입증가는 무역전환효과<sup>22)</sup>로 석유, 석유화학제품에서 주로 나타날 것으로 분석됨.
- 양자간 무역수지는 약 4.5억 달러의 추가 적자가 발생하지만 석유와 석유화학제품을 제외한 타 산업에서는 2.2억 달러의 수지 개선 효과가 발생
-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은 가격탄력성이 낮기 때문에 수입증가는 대부분 무역전환에서 비롯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GCC가 현재 추진 중인 EU, 중국, 일본, 기타 아시아국가들과의 FTA가 체결되어 발효될 경우 GCC-한국과의 FTA 체결에 따른 교역관계의 변화는 거의 없을 것으로 추정됨.

22) FTA체결에 따라 양국의 무역장벽이 제거되면 효율적인 생산자였던 제3국으로부터 수입했던 제품이 FTA 당사국으로부터 수입이 전환되는 것을 무역전환효과(Trader Diversion Effects)라 칭하며, FTA체결전 FTA 당사국의 높은 무역장벽으로 인해 제3국이 비효율적인 생산자임에도 불구하고 제3국으로부터 수입했던 제품이 FTA체결 후 당사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효과를 무역창출효과(Trade Creation Effects)라 칭함

- 오히려, 다른 국가들과의 FTA 체결은 한-GCC 교역에 부정적인 효과를 발생하며, 이의 상쇄, 즉 현상유지를 위해 한-GCC의 FTA 추진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

#### 4.2.2. 경제후생에 미치는 효과<sup>23)</sup>

- 한-GCC FTA는 우리의 총산출을 2000년 기준으로 약 5,300억원 (0.04%), 고용을 8,384명(0.05%) 증가시킬 것으로 추정
- 산출은 전기전자기기, 철강 및 비철금속, 고용은 서비스분야에서 주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
- 한-GCC FTA는 우리 GDP를 정태적으로는 0.04% 증가시키고 자본 축적 효과를 고려할 경우 0.54%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

< 표 13 > 한-GCC FTA의 경제적 효과

부 문		경제적 효과	분석방법
대GCC 수출		연간 2.6억달러(4.9%)	탄력성 분석
대GCC 수입		연간 7.0억달러(2.4%)	탄력성 분석
대GCC 무역수지	전산업	연간 4.5억 달러 감소	탄력성 분석
	석유 및 석유화학 제외	연간 2.2억 달러 증가	탄력성 분석
국내총산출	수입유발효과 제외 (2000년 기준)	연간 5,300억원(0.04%)	산업연관분석
국내고용	수입유발효과 제외 (2000년 기준)	연간 8,384명(0.05%)	산업연관분석
경제성장	정태효과	총 0.04%	회귀분석, CGE
	동태효과(자본축적효과포함)	총 0.54%	CGE분석

자료: KIEP

23) 역시 GCC가 다른 국가/블록과 FTA를 체결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의 분석이며, GCC가 다른 국가들과 FTA를 체결할 경우에 한-GCC FTA 체결에 따른 경제후생의 효과는 거의 없을 것으로 추정됨

### 4.2.3. 재정수입에 미치는 효과

- 한-GCC FTA 체결과 양국의 관세가 폐지될 경우 GCC지역의 원유 및 석유제품에 대한 관세수입이 연간 4,147억원(2004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관세수입의 6.1%비중, 재정의 0.4% 비중)에 달해 우리의 재정수입에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sup>24)</sup>

< 표 14 > 원유 및 석유제품에 대한 관세수입현황

구 분	금액(억원)	비중
원유에 대한 관세수입	3,120	4.6%
-GCC 원유 수입분에 대한 관세	2,120	3.1%
석유제품에 대한 관세수입	3,571	5.2%
-GCC 원유 수입분에 대한 관세	2,027	3.0%
우리나라 전체 관세수입	68,473	100%

주 : 원유의 관세는 1%, 석유제품은 5%의 관세율을 적용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 2004년도

### 4.3. 분야별 예상효과

#### 4.3.1. 상품 분야

- GCC와의 교역규모는 479억불(수출 62억불 + 수입 417억불)에 이르고 무역적자는 355억불에 이르는 바, FTA체결 시 수출증대 및 교역확대 효과 기대
  - GCC국가가 다른 국가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GCC FTA 체결에 따른 상품분야 효과는 수출 약 4억 달러, 수입 약 7억 달러로 11억 달러의 교역확대가 예상됨<sup>25)</sup>
  - 앞서 언급한 것처럼 FTA 체결에 따른 관세철폐로 석유 및 석유제품 관세수입(2004년 기준 4,147억원) 감소<sup>26)</sup>가 예상되며, 기타 품목 수입규모는 미미하여 관세수입 감소폭도 미미할 전망이다.

24) KITA 주간무역리뷰 No.183 (2005.10.31)

25) KIEP의 분석을 바탕으로 2005년 통계치 및 수출증가 추세를 고려한 추정 분석치임

26) 4.2.3. 재정수입에 미치는 효과 참조

□ 주요상품의 GCC내 한국상품 경쟁력 비교

○ GCC국가의 최대 수출국인 EU, 미국, 일본, 중국에 대해 2005년 각국 수출통계를 기준으로 한국 점유비중을 통해 경쟁력을 분석 결과, 전체 총수출에서는 5위를 기록하고 있으나, 한국의 대GCC수출의 2/3를 차지하는 주요품목은 4위를 기록중임.

- 칼라TV 및 평판디스플레이는 1위
- 휴대폰, 가열조리기, 에어컨, 인조섬유직물, 편직물은 2위
- 냉장고.냉동고는 3위를 기록함

< 표 15 > GCC국가의 주요상품별 수입시장 상대 점유율(2005년)<sup>27)</sup>  
(단위 : US\$백만, %)

품목(HS Code)	한국수출 (백만\$)	주요 5개국 상대적 점유비중(%)				
		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
자동차(8702,8703,8704)	1,091	7.13	0.67	42.42	20.53	29.24
철강 및 제품(72, 73)	656	11.63	13.10	18.08	53.20	3.99
휴대폰(85252070)	404	4.30	1.53	0.02	93.98	0.17
가열조리기(8419)	248	<b>32.29</b>	0.80	9.52	47.87	9.52
에어컨(8415)	186	<b>26.55</b>	34.68	2.89	13.26	22.61
건설중장비(8426,8427,8429)	139	8.72	10.58	33.65	38.35	8.70
냉장고,냉동고(8418)	98	18.42	13.64	1.31	42.94	23.69
관, 탭, 밸브(8481)	58	4.99	11.57	4.31	70.19	8.95
플라스틱 및 제품(39)	149	7.60	17.18	3.92	59.02	12.29
유기화학품(29)	54	8.02	17.49	3.59	47.10	23.80
인조섬유직물(5407)	259	<b>24.80</b>	64.82	7.84	2.31	0.22
편직물(6001, 6002)	19	<b>23.96</b>	68.03	0.31	5.53	2.18
칼라TV평판DSP(8528)	426	<b>46.94</b>	34.74	11.62	5.98	0.72
컴퓨터(8471)	61	3.20	23.35	1.32	62.52	9.61
자동차부품(8706, 8008)	135	9.63	13.46	32.31	32.57	12.03
타이어(4011)	173	13.54	24.73	45.16	14.20	2.37
sub-total	4,160	9.38	9.17	21.51	46.18	13.77
전체 수출	6,228	5.47	12.08	11.45	54.14	16.86

주 : 5개 국가 간의 비교를 위해 5개 수출국 이외의 통계를 제외하고 상대적 점유비율을 작성함. 따라서, 실제 시장점유율은 위의 수치보다 낮음.

자료 : KITA 무역통계(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 무역통계)

27) GCC 각 국가별 수입통계 입수 제약으로 인해 수출국 통계를 활용하여 합산하여 작성

- GCC국가가 다른 국가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GCC FTA가 체결되면, 관세(통상 5%)<sup>28)</sup>가 면제되어 주요 상품의 가격경쟁력이 강화되어 약 4억 달러의 수출증가가 예상된다.
- 관세면제에 따라 수출증대효과가 큰 품목은 철강 및 제품, 에어컨, 냉장고, 냉동고, 기타전기전자기기, 식물 등 비교적 가격에 민감한 품목으로 관세 면제율 이상의 수출증대효과가 기대됨
- 관세 면제율 만큼 가격경쟁력이 강화되어 수출이 확대된다고 단순 가정할 경우 수출증대효과는 3억 1천만 달러에 이르며,
- 특히, 사우디의 경우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철강 및 제품(72, 73 일부 : 12% 또는 20%), 벽걸이 에어컨 984151020 : 12%), 냉장고·냉동고(8418 : 12%), 플라스틱 및 제품(39 일부 : 12%), 유기화학품(29 일부 : 12%)에 대한 경쟁력은 크게 강화되어 이들 제품의 수출이 보다 확대될 전망으로 이에 대한 GCC 전체 추가 수출증대효과는 약 9천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

< 표 16 > 사우디아라비아 5%이외 관세율 적용 주요품목 및 관세율

품목	HS Code	관세율(%)
화물자동차	8704	12% 또는 20%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선	7208, 7209, 7210, 7217	12%
철강재의 강시판	730110	12%
주철제의 관과 중공프로파일	7303	12%
철강재의 관과 중공프로파일, 기타관	7304, 7305, 7306	20%
철강재 탱크, 저장조, 용기	8310	20%
철강선재의 클로드	7314	20%
못(철강재), 스크루볼트(철강재)	7317, 731815, 731816	12%
철강재 조리기구	73211110	12%
철강재 식탁용품, 울, 주방용품, 기타	7323, 7326	20%
벽걸이형 에어컨	84151020	12%
냉장고, 냉동고	8418	12%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스티렌, 초산비닐중합체, 에폭시수지, 페놀수지,	390110, 390210, 390310, 390512, 390730, 390910, 390920	12%
에틸렌, 프로필렌, 헥센, 옥토크실렌, 메탄올, 에틸렌글리콜	290121, 290122, 29012910, 290241, 290511, 290531	12%

자료 : 사우디 관세청

28) GCC의 일반상품 관세율은 예외를 제외하고 5%의 단일관세율임

- 그러나, 보다 현실적인 분석은 현재 GCC가 EU, 미국(개별), 중국, 일본 등과 우리보다 먼저 FTA협상을 진행 중에 있기에 이들 국가(블록)과의 FTA 체결이 먼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GCC와 이들 국가간의 FTA 발효 시 한국의 수출은 약 5억 달러 이상의 감소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
  - 특히, 중국은 중동시장에서 전통적으로 우리의 주력 수출상품인 석유, 생활용품, 기타 소비재 시장의 상당부분을 이미 잠식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근 전기전자, 중소형기계류, 위성방송 수신기, 휴대폰, 의료기기 등으로 수출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건설업의 경우에도 중국 업체와의 가격경쟁 열세로 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플랜트분야에서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어 GCC-중국 FTA 체결은 한국의 대중동 진출에 강력한 복병으로 등장
  - 원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수입의 경우 미국, 일본, 중국 등에너지 대량 소비국가의 GCC 원유도입이 확대되어 한국으로서는 에너지 확보의 문제가 발생
- 중국-GCC간 FTA체결 시 한국의 대 중국 석유화학제품 수출에 직접 타격 예상
  - GCC의 원유 이외 주요수출품은 석유화학제품으로 GCC와 한국은 중국 석유화학제품 시장에서 경쟁 중
  - 2005년도 한국의 석유화학제품 수출 중 대중국 수출은 전체의 43%를 차지할 정도로 대 중국 수출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중국 시장에서 20%의 시장점유율로 1위를 기록
    - 일본 2위 17.1%, 대만 3위 16.6%, 미국 4위 8.2%, GCC는 5.74% 점유율로 5위임 (국별로는 사우디가 5위)

< 표 17 > 중국의 석유화학제품(HS 29+39) 수입현황

(단위 : US\$천, %)

구 분	2004	2005	증가율(%)	점유율(%)
전체	51,875,843	61,361,539	18.29	100.00
한국	9,848,959	12,381,135	25.71	20.18
GCC소계	2,527,572	3,522,633	39.37	5.74
사우디	1,945,453	2,833,925	45.67	4.62
UAE	131,465	148,678	13.09	0.24
쿠웨이트	225,050	253,359	12.58	0.41
오만	0	46	-	0.00
카타르	209,158	272,923	30.49	0.44
바레인	16,446	13,702	-16.68	0.02

자료 : KITA 중국무역통계

- 한국과 GCC(특히, 사우디)와의 중국 석유화학제품시장에서의 경쟁품목은 에틸렌글리콜, 에틸렌중합체(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제품으로 비교적 관세율이 높아 GCC-중국 간 FTA 체결로 이들 국가간 관세가 철폐될 경우 한국의 수출에 직접 타격 예상  
- 5% 감소 시 약 1억불 수출 감소

<표 18> 중국 석유화학제품 수입시장에서의 사우디-한국 경쟁품목현황

(단위 : US\$천, %)

HS Code	품목	2005 對사우디 수입(백만US\$)	2005 對한국 수입(백만US\$)	평균 관세율(%)
290531	에틸렌글리콜	1,070	242	5.5
390120	폴리에틸렌	298	701	12.9
390190	기타 에틸렌중합체	492	232	10.3
390210	폴리프로필렌	144	864	10.0

자료 : KITA 중국무역통계

- GCC와 다른 경쟁국가간 FTA가 체결되고, 한-GCC FTA 체결시에는 순수한 FTA 체결에 따른 상품분야 효과는 없거나 미미할 것으로 추정됨
- 한국을 포함한 주요 경쟁국 5개국(블록)<sup>29)</sup> 이외에 수입 10위권 이내인 인도, 호주 등도 GCC와 FTA를 추진계획으로 있음

29) EU내에서는 독일, 영국, 이태리, 프랑스가 GCC 수입시장 10위권 이내임

### 4.3.2. 에너지 자원 분야

- FTA 추진 시 에너지자원 협력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경우, 원유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통한 이익이 기대
  - 중국, 인도 등의 GCC와의 연계강화에 따라, 우리의 對 GCC 협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FTA를 통해 대등한 협상력을 유지하고, 에너지협력의 제도화, 물량의 우선적 확보, 탐사·채굴 사업 진출 등이 기대
  - 특히 원유 탐사·채굴의 경우 국영 독점사업으로 운영하고 극히 제한적으로만 개방되어 있으나, 최근 사우디 등이 탐사·채굴 사업을 일부 개방하고 있어 사업진출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
    - 우리 기업의 GCC 지역 채굴 사업 진출 건은 총 3건(오만 2건, 카타르 1건; 원유 2.2천B/D, 가스 209천톤/D 생산), 중동지역 전체로는 총 6건(채굴 5건, 탐사 1건; 원유 82.2천B/D, 가스 209천톤/D 생산)
    - 중국의 경우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가스 탐사·채굴 시장을 일부 개방함에 따라, 2004년 중국 최대 석유회사인 Sinopec이 사우디 Empty Quarter 가스정 개발에 참여하고, 또한 미국 Chevron Texaco사와 합작으로 쿠웨이트 석유화학단지 건설을 위한 Project Kuwait에도 참여 하는 등 구체적 성과를 거두고 있음<sup>30)</sup>

### 4.3.3. 서비스·투자 분야

- 서비스 분야의 경우, GCC국가들 대부분이 개방 정도가 극히 낮아 대부분 WTO/GATS상 양허하지 않은 상황인 바, FTA를 통해 유통, 통신, 교통시장 등에 대한 시장접근 확보 기대

30) 한·중·일 3국의 FTA 추진현황과 대응과제, CEO Report, CER-2005-34, 2005.10. 전국경제인연합회

- GCC국가 중 쿠웨이트가 서비스부문 가장 많이 개방되어 있으며, 카타르와 UAE가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바레인의 경우 금융서비스만 허용하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와 오만의 경우 GATS상 양허분야가 아예 존재하지 않음

< 표 19 > GCC국가의 WTO/GATS상 세부 양허서비스 현황

서비스 부문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비즈니스 서비스	-	허용	허용	허용	-	-
통신 서비스	-	허용	-	허용	-	-
건설 및 관련기술서비스	-	허용	허용	허용	-	-
유통서비스	-	-	허용	-	-	-
교육서비스	-	-	-	-	-	-
환경서비스	-	허용	허용	허용	-	-
금융서비스	-	허용	허용	허용	-	허용
보건관련 및 사회서비스	-	-	허용	-	-	-
관광 및 관광관련 서비스	-	허용	허용	허용	-	-
오락, 문화 및 스포츠서비스	-	-	허용	-	-	-
교통서비스	-	-	-	-	-	-

자료 : WTO Service Database, SECTOR-SPECIFIC COMMITMENTS

- 특히 건설분야의 경우 『新 중동 건설붐』에 따라 중동지역에서 2005년중 84억불(전체 수주 158억불의 53% 차지, 산업자원부 발표)의 건설플랜트 수주실적을 기록하였고, 2006년에도 고유가 지속에 따라 중동의 건설 붐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FTA를 통해 우리 건설업체들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중동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 확보

- GCC 국가들은 발주공사의 일정비율(30% 이상)을 현지 업체에 하청(30% Rule), 현지인력 고용(Saudization), 현지자원이용(30% 이상), 현지 Agent 이용 등을 의무화하고 있고, 까다로운 등록요건, 차별적인 세제 등을 유지

- 투자의 경우, 바레인을 제외한 사우디(2002년), UAE(2002년), 쿠웨이트(2004년), 카타르(1999년), 오만(2003년)과 투자보장협정 기 체결하여 양국간 투자가 확대될 전망

#### 4.3.4. 정부조달 분야

- GCC 국가들의 경우 GPA 회원국이 아니며, “외국사업자 입찰제한” “내국 사업자에 대한 가격우대(10% 내외)”, “Offset제도(조달 수익의 35% 정도를 국내 사업에 투자하도록 의무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내 기업 우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바, FTA를 통해 정부조달 시장개방 유도함으로서 우리 기업의 입찰수주여건 개선을 기대

## 5. 시사점 및 대응방안

### 5.1. GCC의 FTA추진에 따른 시사점

#### 5.1.1. 경제통합과 맞물려 GCC의 세계경제에서의 역할증대

- 1981년 주변국가의 정치외교적 위기에서 국가안보차원에서 출발한 GCC는 최근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경제통합의 길로 진행 중이며, GCC가 경제통합을 달성할 경우 중동 최대의 단일경제블록으로서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배가될 전망
- GCC의 경제규모는 세계 18위 수준에 불과하나, 원유매장량의 40%를 차지하고 있고, 세계 석유수출의 28%를 차지할 정도로 막강한 에너지 공급원으로서 그 중요성 이외에 경제 외적인 영향력도 보다 강화될 전망
- 또한, 경제통합 및 세계주요 국가(블록)과의 FTA 체결을 통하여 미국의 대 중동 지배력을 약화시켜 대미 의존도를 낮추어 안보는 물론 정치경제적인 안정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
- 따라서, 한국의 경우에도 GCC의 높아질 위상을 고려하여 정치경제적 협력의 강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할 것임

#### 5.1.2. 각국은 전략적 측면에서의 FTA 체결 추진

- 미국, EU, 중국, 인도 등의 국가가 GCC와의 FTA 체결을 추진 중인데, 대부분의 국가가 교역확대라는 직접적 경제이익보다는 전략적 목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EU는 對중동정책의 일환으로 1980년대부터 지중해지역과 GCC 지역 양 방면에서 FTA를 추진

- 미국은 이라크 전쟁 이후 중동지역에서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확산, 중동의 세계경제 통합 및 포섭을 목적으로 개별국가와 FTA체결 추진<sup>31)</sup>
- 중국과 인도 역시 최근 석유수요의 증대에 따른 석유안보문제가 첨예화되자 2004년부터 GCC 국가와의 FTA 추진에 돌입
- 이들 국가의 對중동정책의 전략적 목적은 중동지역에 대한 자국의 영향력 확대, 석유안보의 강화, 이슬람 지역과의 관계개선 등인 것으로 분석됨.
- FTA가 영향력 확대나 에너지안보에 직접적인 이익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경제적 관계강화의 상징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걸프지역을 중심으로 한 OPEC의 석유생산 비중은 현재 약 35%이지만 향후 계속 증가하여 2030년에는 5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어,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중동의 중요성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

### 5.1.3. 한국의 GCC내 수출경쟁력 약화

- 경쟁국의 FTA 체결에 따른 풍선효과
- GCC에서 경쟁하고 있는 EU, 미국, 일본, 중국, 인도 등 주요 국가들이 FTA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이들 국가의 GCC와의 FTA 체결은 한국의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것임.

31) 2003년 부시 미국대통령은 2013년까지 중동자유무역지대 달성을 추진하는 계획(The Middle East Free Trade Initiative)을 발표하였으며, 미국은 이에 기초하여 중동지역 각국과 무역투자기본협정(TIFA)과 FTA를 단계적으로 추진 중

- 특히, GCC 시장에서 한국은 중국과는 철강, 섬유, 전기전자부문에서, EU, 미국, 일본과는 자동차, 철강, 전자, 건설중장비 부문에서 치열히 경쟁하고 있어 이들 품목의 한국상품 경쟁력 약화가 우려됨.

< 표 20 > GCC내 국가별 경쟁품목 현황

중국	철강, 에어컨, 섬유, 석유화학, 전기전자, 자동차부품
EU	자동차, 철강, 휴대폰, 건설중장비, 석유화학
미국	자동차, 에어컨, 석유화학, 건설중장비
일본	자동차, 철강, 건설중장비, 전기전자, 자동차부품

자료 : GCC내 주요국 시장점유율을 통한 자체분석

- 가격경쟁력 열세로 시장의 지배력을 상실할 경우 회복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함을 감안할 때 실제 각국의 FTA 체결에 따른 한국 상품의 경쟁력 약화는 예상보다 심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됨

□ 주요 바이어들의 반응

- GCC 역내 한국산 제품을 수입하는 주요 바이어를 접촉한 바에 의하면, 기술집약적 제품으로서 가격차이가 큰 상품의 경우에는 GCC와 주요 국가간 FTA 체결이 수입선 전환에 영향이 크지 않는 반면, 가격경쟁이 치열한 가전, 석유화학제품, 섬유 등은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조사

○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sup>32)</sup>

- 한국산 자동차 수입업체는 FTA 체결에 따라 수입선을 전환하지는 않겠지만, 일본, 미국산에 대해 품질대비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선전하고 있는 상황에 경쟁국의 FTA 체결에 따른 무관세 수입은 한국산 차량판매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우려

32) 주요 바이어 20개사를 인터뷰

- 철강 및 철강제품 수입업체는 가격에 매우 민감한 품목이지만 현재 공급부족 현상이 심하여 FTA 체결에 따른 영향은 당장은 크지 않으나, 관세율 격차가 심하여 철강 공급이 안정화될 경우 수입선 전환은 불가피하다는 입장
- 가전 및 섬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자동차부품 바이어는 가격경쟁이 치열하여 비록 5%(석유화학제품 일부는 12%)의 관세율 차이라 하더라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기계류 수입바이어의 경우 한국산 기계류는 유럽, 미국 등에 비해 가격차이가 심하여 5%의 가격변화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

○ UAE의 경우<sup>33)</sup>

- 중국, 일본, EU, 미국 등 경쟁국과 GCC간 FTA 체결이 수입선 전환에 큰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
- 특히, 한국산 제품을 수입하는 바이어의 경우 현재 중국산 제품수입 단가 자체는 한국산보다 저렴하게 형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경쟁력에 의존하여 거래를 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GCC간 FTA 체결시 관세 인하가 한국산 제품수입 감소로 직접 연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추후 중국의 기술력 향상시 관세 인하에 따른 후광효과는 배가될 것으로 전망
- 일본, EU 등과 같이 한국산과 기술 및 가격부문에서 동시 경쟁을 벌이는 국가 제품의 경우 관세 인하시 수입선 변경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

○ 쿠웨이트의 경우<sup>34)</sup>

- 우선 중국 제품과의 관계에 있어 기술 집약적인 제품에 있어서는 품질 면에서 중국제품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5% 정도의 가격차이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
- 일본제품의 경우 가격이 한국산에 비해 비싼 편이라서 가격이 5% 인하되더라도 수입선을 바꿀 만큼 메리트는 되지 않음.

33) 주요 바이어 5개사를 인터뷰

34) 주요 바이어 5개사를 인터뷰

- 다만, 가정용 가전제품의 경우 워낙 일반화되어 있고 경쟁이 치열하여 5%의 가격인하는 수입선 전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오만의 경우<sup>35)</sup>

- 접촉한 바이어에 의하면, 가격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FTA 체결로 인해 가격이 인하될 경우 결과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쪽으로 수입선을 전환할 것으로 전망
- 오만은 미국과 FTA를 체결하였으나, 당초 미국산 제품이 한국산 제품과의 가격차이가 심하여 관세장벽이 철폐되었어도 한국산 제품수입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됨.

## 5.2. 대응방안

### 5.2.1. 수출경쟁력 유지 위해 FTA 조기 추진 필요<sup>36)</sup>

- 경쟁국의 FTA 체결은 한국의 대GCC 교역관계에서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에너지 자원 확보 면에서도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되므로 FTA 체결을 통해 현재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임
- 최근 중국, 일본, ASEAN, EU 등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들이 GCC와의 FTA 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가속화함에 따라 GCC내에서의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우려
- 특히 우리는 석유의 80%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대중동정책이 매우 미흡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GCC와의 FTA는 외교 전략적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음.

35) 주요 바이어 7개사를 인터뷰

36) “GCC국가와의 FTA추진방안”(2006.11. 이재길 주사우디 한국대사) 자료 일부인용. 2006.11월 개최된 GCC 공관장 협의회에서도 GCC와의 FTA 조기추진 필요성에 대해 논의됨.

- GCC 내부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고, 현재 GCC가 진행 중인 각국과의 FTA 협상일정을 고려할 때 우리가 협상을 요청하더라도 즉시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므로 GCC와의 FTA추진 여부를 조속 결정하여 FTA 협상을 제안할 필요성이 시급함
  - FTA 추진은 각료이사회 결정사항으로 신청 후 협상개시까지는 최소한 6개월 이상 소요될 전망이어서 2006년내 협상제안을 하더라도 빨라야 2007년 하반기 후반에 협상이 개시될 수 있을 전망이다.
  - 특히, 현재 GCC 사무국은 경제통합의 추진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FTA협상 업무 등이 산적하여 한국과의 FTA 협상은 예상보다 훨씬 늦게 일정이 잡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 우리가 시기를 놓칠 경우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며, 멕시코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모라토리엄에 걸려 외톨이가 될 가능성이 많음.
  
- GCC와 FTA 추진에 따른 장애요소는 거의 없는 상황
  - GCC와의 교역구조는 경쟁관계가 아닌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예상되는 민감 교역품목은 거의 없는 실정으로 FTA 추진 시 업계의 반발 등의 문제점은 거의 발생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별다른 부담이 없이 FTA 추진이 가능한 상황
  - GCC 국가들의 對韓 FTA 체결 의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GCC 사무국의 실무입장은 한국이 FTA 협상을 제의할 경우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sup>37)</sup>
  - 단, GCC와의 FTA 협상은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관세 철폐나 감축에 따른 세수감소문제에 대한 우리 측의 입장 정립이 선행되어야 하는 과제가 있음.

37) 2006년 3월 정부조사단 GCC사무국 방문, 2005년 8월, 2006년 10월 한국대사관의 GCC사무국 방문결과 GCC사무국 경제담당 사무차장 Mohamed O. Al-Mazrooei 및 FTA담당국장 Ali S. Al-Atar는 한국과의 FTA 체결에 반대할 이유가 없으며, FTA협상을 제의할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을 표명

## 5.2.2. GCC와의 FTA 추진 방향

- GCC는 2003년부터 관세동맹을 이행하고 있고, 2007년까지 단일 시장 공동체가 될 예정이며, GCC의 대외경제협력의 기본원칙이 GCC 단위의 협상인 바, GCC 국가와의 FTA를 추진할 경우 개별 국가 차원이 아닌 **GCC 전체와 FTA 추진이 바람직할 것임**
-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관세 철폐나 감축에 따른 세수감소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이 필요할 경우 **우선 FTA 협상 제안을 한 후 협상개시 전까지 우리 측의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적정시기를 놓치지 않은 보다 바람직한 전력으로 판단됨**
  - 동 건은 설사 입장 정립이 되지 않더라도 협상 의제로 상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원유에 대한 무관세 예외적용 요청 등)
  - 그러나, 미국, 일본, EU 등 주요 경쟁국들에 비해 우리의 원유에 대한 관세는 상대적으로 높아 물가부담, 산업경쟁력 약화의 요인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유 및 석유제품 뿐만 아니라 FTA 체결에 따른 여러 상품의 관세 철폐로 인한 세수 감소는 개방경제로 나가는데 필수적으로 감수해야하는 사항으로 관세 수입을 재정수입의 원천으로 보는 시각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음.

< 표 21 > 주요국의 원유 및 석유제품 관세율

(단위 : 원/리터)

	한국	미국	일본	EU	중국	대만
원유	5%(1%)	0.69	무세(1.61)	무세	무세	2.5%(무세)
휘발유	8%(5%)	3.44	17.33(13.22)	4.7%	5%	15%(10.5%)
등유	8%(5%)	0.69	16.67(5.34)	4.7%	6%	15%(10.5%)
경유	8%(5%)	3.44	15.52(11.90)	3.5%	6%	15%(5%)
중유	8%(5%)	3.44	5.68(24.55/31.33)	3.5%	6%	15%
		0.69	2.84(22.50/30.32)			5%
나프타	5%(무세)	0.69	17.33(0.09)	4.7%	6%	무세
아스팔트	5%	무세	무세	무세	8%	1%
윤활유	7%	5.51	9.6%(7.6%)	3.7%	6%	7%(4.1%)

주 : 미 달러 및 일본 엔화를 2005년 평균환율로 환산 재계산

자료 : 대한석유협회

### 5.2.3. 정치 외교적 교류확대

- GCC는 중동국가 내에서도 부유한 산유국이며 이슬람 종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포함되어 있어 타 중동국가에 비해 정치 외교적 중요성이 높은 지역임
- 따라서, 대중동 외교정책도 GCC를 중동 내 별도의 그룹으로 인정하여 다른 중동국가와의 차별적인 외교정책의 수립이 필요
- 최근 중국, 일본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정상외교를 펼치며, 관계 강화를 모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또한 신임 압둘라 국왕 취임이후 동방정책(look east)을 추진, 중국, 일본을 방문하여 정치경제외교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임
- 왕정국가인 GCC 각국의 특성상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경제협력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FTA 추진을 통한 경제협력강화와 함께 정치외교적 교류확대를 통한 GCC내 한국의 지배력과 경쟁력 강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풍부한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한 대규모 프로젝트 발주가 크게 증가하고 투자가 활성화되는 제2의 경제부흥기인 현 시점에서 정치외교적 관계강화는 한국의 대 중동시장진출을 통한 오일머니 환류정책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보임.  
.끝.

## 주요 참고자료

- 이재길. 『GCC국가와의 FTA추진방안』. 주사우디아라비아한국대사  
배희연. 2005. 『중동 GCC와 EU간 FTA 추진 배경과 전망』. 지역리포트  
05-03. 대외경제연구원(KIEP)
- 황주성. 『FTA정책을 둘러싼 GCC 내부의 갈등과 최근동향』. 세계경제 2006  
년2월호. 대외경제연구원(KIEP)
- 박순찬 외 8. 『FTA의 득과 실』. 정책자료 04-01. 대외경제연구원(KIEP)
- 주간무역리뷰 No.183. 2005.10.31. 한국무역협회  
『한.중.일 3국의 FTA 추진현황과 대응과제』. CEO Report, CER-2005-34,  
2005.10. 전국경제인연합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한국, 미국, 중국, 일본, EU). [www.kita.net](http://www.kita.net)
- GCC 사무국. 2006. 『Achievements of the GCC』
- GCC. 2001.12.30. 『The Economic Agreement Between the GCC States』
- GCC 사무국. 2003. 『Implementation Procedures For the Customs Union  
for GCC』
- Daniel Hanna, Standard Chartered Bank. 『A new fiscal framework for  
GCC countries ahead of monetary union』 (May 2006)
- Saif S. Alsowaidi, Qatar University 『A Single Currency For The GCC :  
Launching A New Culture』 2006. EARB & ETLC
- USTR. 2004. 『Foreign Trade Barriers』
- IMF. 『World Economic Outlook, Middle East and Central Asia』 Sept. 2006
- IMF. 『Regional Economic Outlook, Middle East and Central Asia』 Sept.  
2006
-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06』. 2005
- EIU. 2006. GCC 각국 Country profile, Country Report  
[www.gcc-sg.org](http://www.gcc-sg.org)  
[www.imf.org](http://www.imf.org)  
[www.worldbank.org](http://www.worldbank.org)  
[www.ustr.gov](http://www.ustr.gov)  
[www.opec.org](http://www.opec.org)  
[www.bp.com](http://www.bp.com)

작성자

◆ 리야드무역관	권용석 관장
◆ 무스카트무역관	허진원 관장
◆ 쿠웨이트무역관	김종원 차장
◆ 두바이무역관	이영희 과장

- 韓-GCC(걸프협력회의) FTA 체결 영향과 시사점 -

발행인 : 흥기화

발행처 : KOTRA

인쇄처 : 학림사 02)752-0463

발행일 : 2006년 12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9  
(우 137-749)

전 화 : 02)3460-7114(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Copyright © 2006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